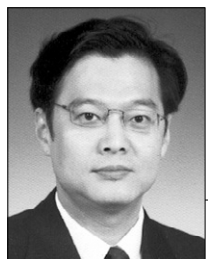


이명박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경실련에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직무수행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매섭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전문가들의 67.1%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으며, 이들은 그 이유로서 '일방적·독선적 행태'(70.1%), '낮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인식'(55.8%), '국민과의 소통부족'(51.5%) 등을 거론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년 동안 이명박정부의 국정운영방식을 보면 당연한 반응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CEO형 리더십을 천명하였다. 노무현정부 시절 사회양극화 심화와 국정 혼란의 결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강력한 리더십에 기초한 경제성장과 성장의 과실을 요구하던 터라 정체가 모호한 이명박 후보의 CEO리더십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대국민은 '신 사고'를 몰아버린 듯하다.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강력한 CEO리더십은 정책결정의 오만과 독선, 정책대상의 일방성, 상대방에 대한 불인정, 모든 사회관계의 적대화로 함축된다.

'기업이 잘 돼야 국민이 잘 살 수 있다'는 대통령의 소신은 출범과 함께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정책(감세 결속본은 90조원에 달한다)을 감행하였고, 경제 살리기와는 별 상관없이 있지만 강부자 내각이 허



불자 세상보기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독선적 리더십은 재앙을 불러온다

명이 아니듯 겨우 최상위층 28만 가구를 위해 종부세를 대폭 낮추었다. 대통령의 일방 독주는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채 미국의 요구를 일방 수용한 한미 쇄고기 협상에서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쫓돌 시위대의 함성과 아침이슬을 들으면서 늦은 밤까지 많은 생각을 하셨다는 대통령의 고인의 결과는 소통이 아니라 브레이크 없는 질주였다. 쫓돌집회가 사그라지자 정부는 집회와 시위 위반자들에게 대대적인 검거와 구속에 착수하였다. 미네르바 사건처럼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은 철저하게 차단시켰다. 이러한 기조는 2009년 '홍삼참사'와 '쌍용차사태'로 이어졌으며, 정부에 비판적인

각종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켰다. 뿐만 아니라 아예 잠재적인 비판세력엔 온갖 음해와 고소 남발로 비판의 씨를 잘라버리고자 하는 시도도 계속되었다. 소위 '강부자' 내각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거세지자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는 등 일정 정도 국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하였지만, 국민들이 경험한 것은 대통령이 시장에서 순댓국, 어묵, 떡볶이를 먹는 사진뿐이다. 국민이 잠시 그러한 정경을 통해 감상에 빠져 있는 동안 이 대통령은 반향경 사업의 종합판인 4대강 정비사업에 물경 22조원을 투자하였다. 강 정비사업이 아니라 '강 죽이기' 사업이라는 수많은 전문가들, 4대강 주변에 삶을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

여우는 점심 때가 지나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배가 고파진 여우는 만사를 제쳐두고 먹이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한참을 헤매던 여우는 마침내 포도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여우는 높다랗게 달려 있는 포도송이를 올려다봤다. 포도가 너무 높다랗게 달려 있어 따먹기가 힘들어 보였다. 슬픔에 잠긴 여우는 어떻게 하면 따먹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러나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푸른 잎사귀 사이로 검은 열매를 드러낸 채 두눈이 달려 있는 포도를 바라보며 여우는 고작 집만 흘러야 했다.

시험삼아 몇 번 필쩍 뛰어올라보았지만, 여우는 포도를 따먹을 수 없었다. 여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먹고 싶지 않아. 저 포도는 너무 시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을 거야." 예전에 읽은 이솝우화의 이 여우는 그저 포기에 급급한 나태한 자의 표상이 아니었을까? 포도 열매를 먹지 못한 여우는 최선에 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으르고 불성실하게만 느껴졌다. 이런 생각과 함께 동화책을 덮으면서 든 생각은 이랬다. "여우는 왜 한 번 더 뛰어오르지 않았을까?" "왜 다시 한번 숨 고르고 더 높이 오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을까?" "너무 이른 포기로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



사부대중 갈림

정완 스님
전국비구니회 교무국장

여우는 왜 뛰지 않았을까?

을까?" "안 되면 뭘 때까지 밀어붙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있을까?" 이솝우화의 포도를 얻지 못한 여우는 바라보면 나의 시선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한다는 기성세대의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결론까지 이르렀다. 포도를 따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 치던 여우의 땀방울은 결과를 성취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덮여져 있었다. 결국, 포도를 먹지 못한 여우의 한탄은 성공하지 못한 자의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현대사회는 결과를 중시한다. 열매를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가 중요할 뿐이다. 열

매가 열리기까지의 과정과 그것을 얻기 위한 자의 노력은 주목받지 못하는 세상이다. 아나나 다를까? 최근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 픽이 끝났다. 언론에서는 김연아, 모태범, 이상화, 이정수 등 금메달 리스트들만 연일 주목받고 있다. 올림픽을 위해 지난 4년 땀 흘렸던 선수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도 관심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먹을지스러운 포도를 뒤로하고 돌아서는 여우의 한탄은 한낱 낙약하고 게으른 변명이라 배웁을 터이다. 또, 수 년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도 결과가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지금까지 과정을 뒷받침해야 하는 공정성과 정직함이 성취해야만 하는 결

민들의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귀에는 마이동풍이다.

집권 2년차에 불과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피로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명박 대통령의 CEO리더십은 마치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논리처럼, 모든 국민적 삶을 적자생존의 논리로 이끌어 갔다. 그러다보니 모든 국정논리를 극단적인 경쟁과 생존의 논리로 끌어가며, 내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반 옳다는 독선에 빠져있는 듯하다. '고소영' 내각이 허풍이 아니듯 국정주의 사결정도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특정 학맥, 지역, 종교와의 네트워크 속에서만 작동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난 십 수 년 동안 국민이 어렵게 획득한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대통령의 리더십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 속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지, 폐쇄적 네트워크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부끄럽지만 우리 헌정사에서 전임 대통령들은 이와 관련하여 하지 말아야 할 전형적인 교훈을 보여주었고 결국 그러한 리더십은 개인의 불행으로 귀결되지 않았던가?

독선적 리더십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행을 초래한다. 이 대통령도 전임자들의 행보를 반면교사하여 지금까지도 각계 각층과의 허심탄회한 소통을 추구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과 앞에서 변명거리가 되지 못했다면 이제는 달려야 하지 않을까?

포도를 먹지 못하고 변명을 남긴 여우가 측은하다. 다소 안쓰럽기까지 하다. 열매를 얻기 위해 애쓰던 여우의 땀방울과 그것을 얻지 못한 채 뒤돌아서버 내린지는 귀여운 변명을 이해할 수 있는 자비를 기르자. 성공의 문턱에서 돌아서야만 하는 그 마음 속을 완전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포도 열매들을 향해 뛰어올랐던 여우의 땀방울을 인정해 주자.

내가 원하던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수는 없다. 구하던 모든 것들을 내 인생 안에 놓을 수는 없다. 다만 그것들을 향해 달려갔던 나의 시간들을 부정하지는 말자. 그 시간들에 흘린 수많은 땀들과 눈물마저 부인하지는 말자. 또다시 새로운 봄이다.

다시 계절이 바뀌면서 누군가는 성취의 기쁨을 누리겠지만 누군가는 저 여우의 변명과 같이 성공의 문턱에서 되돌아갈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지나간 시간들의 수많은 땀과 눈물을 잊지는 말자. 그리고 훗시 나의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는 말자.

지금의 실패는 여우의 포도와 같이 아직 열매가 익지 않아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돌아서서 '아직 익지 않아 시고 맛있는 열매를 따먹자' 다음을 준비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사설

총무원은 더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 부원장제 도입, 도선사·봉은사의 직영사찰 신규 지정, 동국대학교 이사회보 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예사롭지 않다.

부원장제는 총무원장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며, 직영사찰 신규 지정은 총무원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총무원은 설명하고 있다.

부원장제 도입은 종현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직영사찰 신규 지정은 해당 사찰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지 않으면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당장 해당 사찰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동국대학교 이사회보 선출과 관련해서는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교 설립 시 많은 자산을 출연한 월정사 등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몇 사람이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발 기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부원장제 도입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살피기에 앞서 종회 개원을 며칠 앞두고 논의에 부쳐진 것이 관찮은 것인지 묻고 싶다.

총무원장의 업무 과다가 부원장제 도입의 가장 큰 이유라면, 사서실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새로운 부서의 신설 등 종현을 개정하지 않고도 시행 가능한 여러 방안을 검토했는지 다. 총무원에서는 그럼에도 부원장제 도입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종현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중앙총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많은 종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굳이 생략을 필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재정과 관련한 총무원의 고충을 모

르는바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종교인 불교의 장자종단 조계종의 1년 예산이 347억 원 정도라는 것은 누가 봐도 빈약하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사찰에서 내는 분담금을 인상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몇몇 재정이 우량한 사찰을 직영사찰로 지정하려 했을 것이다. 직영사찰을 신규로 지정하려면 사찰의 재원을 직영사찰에서 해제하려는 것이 우선 공급하다. 총무원의 재정 형편을 살펴보고, 분담금을 올리기 위해 사찰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총무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교구본사를 참여시켜 결과적으로 분담금을 상향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 여러 방안들을 숙고했으나 직영사찰 신규 지정이 가장 현실성 있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일까.

그럼에도 총무원 재정을 공론의 장으로 내놓고 많은 종도들의 지혜를 모으지 않았는지 내내 아쉽다. 종도들의 대의기구인 종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는지 내내 아쉽다. 종도들의 대의기구인 종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는지 내내 아쉽다. 종도들의 대의기구인 종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는지 내내 아쉽다.

부원장제 도입과 직영사찰 신규 지정 추진이 종단 발전을 위한 총무원의 구상일 텐데도, 갑추일 의도가 무엇이고, 실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화합을 바탕으로 나아가야 할 총무원과 중앙총회가 오해와 불신과 권력다툼의 늪으로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 안으로 화합을 바탕으로 개혁을 이루내고, 밖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자비보살행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나아가지 않았는가. 총무원은 부원장제 도입과 재정 확보 취지에 맞는 주제를 다시 설정해 공론의 장에 내놓아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구 안국동 175-87 한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외사실 연월일당 실시간 뉴스 못다뉴스 불교포탈 부디피어 쇼핑몰 연월일당당당	www.hyunbul.com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화제의 신간

누·구·나·심·계·이·해·하·고·배·울·수·있·는!!

핵·심·사·주

1천여 년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정법 학술!!

四柱學의 초보자나 학생, 전문가, 결혼 중개사는 꼭 배워야하는 四柱學의 秘傳으로 누구나 이 책 한권으로 한탄만 읽어도 쉽게 專門家가 될 수 있도록 核心만을 간추렸다. 대대로 수제자들에게만 전해져온 사주풀이의 비법을 공개한 이 책은 기존 대부분의 사주풀이 방법을 완전 뒤집은 진정한 사주풀이의 혁명적 책가가 될 것이다. 특히 여지사주와 궁합의 원리는 한국 古代 道人들로부터 秘傳으로 傳受되어온 秘法으로 天氣를 누설한 四柱學의 革命을 가져올 力作이다.

이제 천기를 누설 한다!!

기존의 사주학 학설로는 오직 개인의 숙명의 귀, 천 만을 알 수 있고 미래 운명의 예측은 50여%에 미달하고 전혀 반대되는 운명을 예측하는 오류가 있다. 본 "핵심사주"는 1천여 년 만에 사주학의 올바른 정법 법칙을 완성한 역작이다!!

왜 핵심사주인가.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최초로 공개되는 궁합의 비법!!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鄭炳玉 博士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25,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이제 당신도 점술가가 될 수 있다! 역술무속인들도 숨겨놓고 본다.

천기가 누설된다고 하여 나라에서 금기시했던 자미두수! 알아서도 실리를 알 수 있는 고산의 자미두수가 당신의 운세를 알려 주는 것은 물론 단점을 귀신도 곡하는 신룡한 점술가로 만들어 준다.

◆ 한국별점 자미두수가 당신의 운세를 ...

이 책은 고대 중국의 진화라는 사람이 기도 중 천기를 받아 창안한 성리학이다. 특히 천지화해를 터득하고 인간의 부귀빈천과 길흉화복을 예지 타의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 정확성이 뛰어나며 귀신도 울고간다하여 금기시되기도 있다. 인연있는 후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 지금의 자미두수로 오늘에 이르렀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 여러분께 좋은 운명의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高山 임청용 지음/4x6배판/양장본/45,000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번이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생생화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글쓴이 : 해천법사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계의 상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나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4x6배판/양장본/70,000원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신국판/청신 김성진 지음/35,000원	新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철 스님 지음/양장본/35,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x6배판/이선영,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x6배판/양장본 1 권 880쪽 2 권 8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명 지음/26,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